

지역 소식통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고창읍 일원서 열려

제23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오는 16일 고창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고창읍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4,000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가을의 정취 속을 달릴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하프코스(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주곡교차로→도산마을→죽림마을→고인돌유적지) △10km코스(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돌담교) △5km코스(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마라톤 코스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특히 공설운동장에서 주곡교차로 구간, 주곡교차로와 고인돌교차로를 잇는 도산·죽림마을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수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청년이 머물며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부안군이 지난 7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본 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정책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및 지자체 간 자치분권과 정책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단체장들이 직접 설명한 정책대회에서 부안군은 그간 추진해 온 '부안형 청년지원 모델'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참여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온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머물고 싶고 지역과 함께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6년 예산안, '시민 행복' 집중

정읍시, 1조2352억원 편성... 민생 · 미래산업 · 문화 · 인프라 5대 분야 방점

정읍시가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750억원(6.47%) 증가한 1조 2352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밝혔다. 시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394억원, 특별회계 958억원이다. 세입예산은 1066억원에서 1087억원으로 21억원(1.97%) 증가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17억원에서 5180억원으로 463억원(9.8%)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2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4189억원에서 4492억원으로 309억원(7.37%) 확대됐다.

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5대 주요 시정 운영방향별로



보면, 먼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일상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비부부 결혼예식비 지원을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며, 1인 청년가구 식비(월 15만1원)와 첫 주택·직장·차량 취득비(연 300만원)를 신규 지원해 청년 자립을 돕는다. 또한 신중년층 재도약 취업지원, 장년층 치매치료 지원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정책을 두텁게 한다.

둘째, 첨단 바이오와 신산업 육성으로 정읍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2026~29

년, 365억원)과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2026~29년, 380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근로자 정착지원 프로그램(5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및 놀이동산 조성을 연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셋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를 만든다. 무성사원 유교수련원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을 본격 운영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100억원), 정읍문화관(30억원) 등을 조성해 문화 체험공간을 확충한다. 내장호 일원에는 생태관광 수변공간을, 국립금계원과 아양산 치유의 숲을 잇는 휴양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품격 있는 도심공간과 활력 넘치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2026~30년, 310억원) 조성을 시작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 가치 · 소중함, 농업인 노고 격려

제30회 정읍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 농 · 축산인 한마음대회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농·축산업인 한마음대회가 11일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정읍시농민단체연합회와 정읍시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농민단체연합, 축산단체연합, 유관기관장,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의 농업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 농업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시민들이 지역 농축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식화와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이끌었다.

기념식 후 진행된 한마음대회는 농업인과 축산업인,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오후에 마련된 문화행사 공연을 통해 농업인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즐겼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거 ·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박차

실수요 맞춘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 구축

부안군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군이 생활형 교통복지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이 실시한 2025년 주차장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안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0년 2만 8155대에서 2024년 2만 9451대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9년에는 약 3만 46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차난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생활 불편으로 꼽혔다.

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가 '주차공간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상가밀집지역 주민의 55.7%는 주차 스트레스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공영주차장 신설 시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5.3% 이상이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절대적 수요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몇 년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9월 완공된 돌파거리 공영주차장은 지상 3층 연면적 6039㎡ 규모로 21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군정 인근 상습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장수사우나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수요를 반영해 효율적 조정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된다.

주차 수요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실질 수요는 약 90면 수준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했던 타워형 대신 130면 규모의 노의주차장으로 변경했다.

군은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접근성 향상, 안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27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성료

고창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춘옥)는 11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제27회 고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체대를 잇는 농업, 농업 미래를 심는 고창'을 주제로 열렸다.

새대 간 공감과 협력을 통해 고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

업 관련 기관·단체장, 지역 농업인 등 1,800여명이 참석해 한 해의 농업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농업인 김영재(고창군 4-H연합회) 회원 등 14명이 군수 표창을, 이경호(고창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3명이 고창군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또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는 농업인단체협의회 공로패가 수여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개소

국내 최초의 농축산물 미생물 자동화 분석 인프라가 정읍에서 문을 열었다.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내 센터에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개소식 및 미생물 효능평가 사업 성과교류 전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대학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전북지역연합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과 전국 농축산물 미생물 산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시가 2024년부터 2025

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국가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구축된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바이오파운드리)'은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초고속·대용량 자동화 장비들을 통해 바이오소재 발굴·설계 및 초병렬 미생물 배양이 가능한 최첨단 분석 인프라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30회 농업인의 날 · 대동한마당 성료

부안군은 11일 부안스포츠파크 야외 무대에서 부안군 16개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형섭) 주관으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4회 부안농업인 대동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농업인 2,0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풍물과 난타 공연으로 시작해 한 해의 농사에 감사하고 내년 풍년을 기원하는 추수감사제, 우수농업인

표창, 기념식, 체육행사, 농민들의 장기자랑 및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형섭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